

성경 번역 내의 형식 일치에 관한 소고 -신명기적 표현 몇 가지를 중심으로-

김동혁*

1. 서론

17세기 영국 시인 드라이든(John Dryden)이 번역 방식을 셋으로 구분한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¹⁾ 첫째, ‘메타프레이즈’(metaphrase)는 “원 저자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한 단어씩, 한 문장씩, 옮기는 것”으로 문자적 번역에 해당한다. 둘째, ‘패러프레이즈’(paraphrase)는 “약간의 자유가 가미된”, “원저자를 시야에서 결코 놓치지 않으면서도, 원저자가 사용한 말보다는 그가 표현한 의미를 더 중시하며, 그 의미를 확대하는 경우는 있으나 변개하지는 않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은 ‘모방’(imitation)으로 이 원리를 따르는 “번역자는 단어와 의미, 이 둘 중 하나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 둘 모두 선택하지 않기도 한다. 번역자에게 있어 원문은 오직 의미의 힌트를 얻는 토대일 뿐이다.”²⁾ 드라이든은 ‘패러프레이즈’를 가장 선호했고 종종 ‘모방’을 선택하기도 하였지만 ‘메타프레이즈’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³⁾ ‘메타프레이즈’는 형식 일치 번역에 가깝고 ‘패러프레이즈’와 ‘모방’은 내용 동등성 번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드라이든의 선택은 오늘날의 성서 번역자들이 형식의 일치보다는 내용의 동등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번역자가 형식을 일치시킴으로써 내용의 동등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그런 예 중 하나가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어떤 성경 저자가 자신의 책 안

* 감리교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구약학.

1) 필자는 본 소고의 심사 과정 중 몇 가지 조언을 통해 원고를 좀 더 다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세 분의 무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표한다.

2) W. P. Ker, ed., *Essays of John Dryden* (Oxford: Clarendon, 1900), 237; Kristin Swenson, *Bible Babel: Making Sense of the Most Talked About Book of All Time* (New York: Harper, 2010), 61-62에서 재인용.

3) Swenson, *Bible Babel*, 62.

에서 어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분명히 그 저자의 의도된 선택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 저자가 이전의 다른 책에 나오는 표현을 동일하게(혹은 비슷하게) 사용했다면 이 역시 이 저자의 의도된 선택이다. 번역자가 원문을 연구하는 중 이러한 경우를 만나면 번역문에서도 같은(혹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을 읽는 독자들에게 원저자의 의도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박동현 교수는 “예레미야서 번역의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비슷한 구조의 표현이 여러 번 나올 때, 또 예레미야서의 어떤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반복될 때, 그 각각의 번역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띠게 하여 “그런 표현이 들어 있는 여러 본문의 관계를 번역문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⁴⁾ 이로써 “번역할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번역”하게 되는 것이다.⁵⁾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번역 내(內)의 형식 일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자는 번역 내의 형식 일치를 통하여 원문의 독자가 전달받았던 메시지를 번역문의 독자를 위해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게 된다.⁶⁾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위한 케이스스터디로서 본 소고는 성경 원문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표현된 신명기적 표현들이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논의한다. 신명기적 표현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신명기는 구약의 책들 중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문학적 위치에 있어 신명기는 토라(오경)를 정리하고 역사(신명기 역사서)를 시작한다. 또 율법으로서의 신명기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한다(시 19:7; 잠 28:7; 참조. 렘 8:8). 전승사적으로 신명기는 출애굽 사건, 시내산 계시, 예루살렘 선택 이야기를 통하여 예언자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구약 성서의 네 부분, 곧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각각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실제

4) 박동현, “예레미야서 번역의 몇 가지 문제”, 『성경원문연구』 16 (2005), 48. 박동현 교수는 <헤팁 다르케켄 우마알레켄>(הַיְטִיבוּ דַרְכֵיכֶם וּמַעַלְלֵיכֶם)과 <(합다바르) 아세르 하야 드바르 야도 나이 엘 이르므야후>(הַדְבָר אֲשֶׁר הָיָה אֵלֵינוּ)를 다룬다. 이 두 표현 외에 박동현 교수는 예레미야서가 구약의 다른 책을 인용한 경우(미 3:12를 렘 26:18이 인용)와 신약 본문이 예레미야서 본문을 인용한 경우(렘 31:15를 마 2:18이 인용, 렘 31:31-34를 히 8:8-12가 인용)를 다룬다.

5) Ibid.

6) 성서 원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가 있을 때 이를 일관성 있게 번역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들의 예로는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표준새번역』과 『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4 (2009), 72-92와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과 한글 성경 역본들”, 『성경원문연구』 28 (2011), 170-203이 있다. 김재성 교수는 공관복음서의 병행 본문들의 우리말 번역을 논의하였고, 이수만 선교사는 이름, 실물 용어, 주요 구문, 인용문, 병행구 등의 여러 우리말 번역을 비교, 대조한 후 번역의 일관성 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필자가 아래에 다룬 어구들은 위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로 신명기의 중요한 표현들은 구약의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다.⁷⁾ 히브리어 성서의 독자들이 성경의 다른 책에서 신명기적 표현을 만났을 때 그것이 신명기에서 온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필자가 신명기적 표현들을 논의의 주제로 고른 또 다른 이유는 실용적인 것이다. 신명기와 신명기적 문헌 연구의 태두인 와인펠드(Moshe Weinfeld)는 그의 저서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의 부록에 신명기적 표현들을 매우 자세하게 정리하였다.⁸⁾ 필자는 와인펠드가 정리한 목록에서 번역에 있어서 중요하고 흥미를 줄 만한 표현 세 가지를 골라 아래에 논의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본문에서는 『새번역』을 다루었고 각주에서는 『개역』, 『개역개정』, 『공동』, 『공동개정』도 언급하였다.

2. אֲתוֹת וּמוֹפְתִים ‘표징과 기적’

- 신 4:34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בְּאֲתוֹת וּבְמוֹפְתִים)와 ...
- 신 6:22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אֲתוֹת וּמוֹפְתִים)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 신 7:19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 표징과 기적(הָאֲתוֹת וְהַמּוֹפְתִים)을 일으키시며 ...
- 신 26:8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בְּאֲתוֹת וּבְמוֹפְתִים),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 신 29:3 당신들은 ... 굉장한 표징과 기적(הָאֲתוֹת וְהַמּוֹפְתִים הַגְּדוֹלִים הָהֵם)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 신 34:11 주님께서서는 ...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הָאֲתוֹת וְהַמּוֹפְתִים)을 하게 하셨다.
- 렘 32:20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אֲתוֹת וּמוֹפְתִים)을 나타내 보이셨고 ...
- 렘 32:21 주님께서서는 ... 많은 징조와 기적들(בְּאֲתוֹת וּבְמוֹפְתִים)을 나타내 시면서 ...
- 시 78:43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אֲתוֹתָיו)를 보이시고, 소안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מוֹפְתָיו)을 보이셨다.

7) 심지어 신약에서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신 6:5를 인용한 마 6:5(//막 12:30//눅 10:27)이다.

8) Moshe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Oxford: Clarendon, 1972), 320-365.

- 시 105:27 백성에게 그의 표징(אֲתוּמֹתָי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מִפְתָּיִם)를 행하게 하셨다.
- 시 135:9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אֲתוּמֹתַיִם וּמִפְתָּיִם)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 느 9:10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אֲתוּמֹתַיִם וּמִפְתָּיִם)를 베푸셔서 …

위의 강조된 부분의 히브리어 표현은 모두 동일한 어순과 구조를 띤다. 곧 $א(ו)תוּמֹת + ו + מִפְתָּיִם$ 이 그것이다. 표현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어서 때로 두 단어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시 78:43; 105:27), 정관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단어들 뒤에 인칭 접미사가 오기도 하고(시 78:43; 105:27)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어순과 문법적 수(數)는 고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 않아서 첫 단어는 ‘표징, 기적, 이적, 징조, 표적’으로 번역되었고, 두 번째 단어는 ‘기사, 기이한 일, 기적(들)’로 번역되었다.⁹⁾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אֲתוּמֹתַיִם וּמִפְתָּיִם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지칭하는 표현이다.¹⁰⁾ 그러니 히브리어를 읽는 독자라면 성경의 어느 곳에서든 이 어구가 나올 때마다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상기했을 것이다. 우리말 번역을 읽는 독자들도 구약의 어느 곳에서든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상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구약 원문에서 위 표현이 나올 때마다 ‘표징과 기적’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첫 단어의 번역으로 『새번역』이 사용한 단어들 중 ‘징조’나 ‘표적’을 택하지 않은 것은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지’(sign)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조’는 대개 미래에 관한 것이고, ‘표적’은 오늘날 ‘표지’(標識, sign)라는 의미보다는 사격 등의 목표점(target)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 두 번째 단어의 번역으로 ‘기사’를 택하지 않은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 ‘기

9) 『개역』과 『개역개정』에서도 위 어구의 번역은 통일되지 않았다. 다만 위 표현이 신명기에 나올 경우는 한결같이 ‘이적과 기사’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번역 내의 형식 일치가 잘 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신명기 밖에서 나올 때는 번역이 일관되지 못하다. ‘표적과 기사’(렘 32:20, 21), ‘표적들, 징조들’(시 78:43; 135:9), ‘표적, 징조들’(시 105:27, 수가 일치되지 않음), ‘이적과 기사’(느 9:10). 『공동』과 『공동개정』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명기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때는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신명 34:11, ‘기적과 표적’) 모두 ‘표적과 기사’로 번역이 통일되었으나 다른 곳에서는 표현들이 서로 많이 다르다.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몸소 힘을 드러내셨으며’ 또는 ‘놀라운 일을 하시어 몸소 힘을 드러내셨습니다’(각각 예레 32:20, 21), ‘표적, 기적’(시편 78:43), ‘표, 기적’(시편 105:27), ‘기적으로 재앙을 내리신’(시편 135:9), ‘놀라운 일로 힘을 드러내시어’(느헤 9:10).

10) Weinfeld, *Deuteronomic School*, 330.

사'라고 하면 오늘날 독자들은 '기이한 일'[奇事]보다 신문, 잡지의 '기사'(記事)를 먼저 생각한다. מופת는 '놀라운 일'을 의미하므로 현대인들이 자주 쓰는 '기적'으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¹¹⁾

3. יד חזקה ובורע נטויה '강한 손과 펴신/편 팔'¹²⁾

- 신 4:34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 **강한 손과 펴신 팔**(ביד חזקה ובורע נטויה)과 큰 두려움으로 ...
- 신 5:15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ביד חזקה ובורע נטוי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
- 신 7:19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 **강한 손과 편 팔**(היד החזקה והורע הנטויה)로 당신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 신 11:2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 팔**(ידו החזקה וורעו הנטוי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
- 신 26:8 **강한 손과 편 팔**(ביד חזקה ובורע נטוי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 왕상 8:42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ביד חזקה וורעך הנטוי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 렘 32:21 주님께서서는 **강한 손과 편 팔**(ביד חזקה ובאורע נטוי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 겔 20:33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능한 손과 편 팔**(ביד חזקה ובורע נטוי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 겔 20:34 내가 **능한 손과 편 팔**(ביד חזקה ובורע נטוי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 시 136:12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ביד חזקה ובורע נטויה)로 이끌어

11)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기적을 σημεῖον 'sign'이라고 부른다. 잘 알려져 있듯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의 기적을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상징(sign)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새번역』에서 σημεῖον은 '표징'으로 번역되었으므로 위 히브리어 어구가 '표징과 기적'으로 번역되게 되면 『새번역』의 독자들은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기적과 요한복음의 예수의 기적을 연결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2) Weinfeld, *Deuteronomic School*, 329.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참조. 렘 21:5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יד חזקה וברוע נטויה)로 너희를 치고

위 구절들의 히브리어 표현은 거의 동일하다. יד와 ברוע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전치사(ב)가 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뒤에 인칭접미사가 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핵심 표현인 נטויה וברוע חזקה ויד는 항상 같다. 와인펠드에 의하면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10회 나오는데(위 렘 21:5 제외), 『새번역』에서는 이 중 6회가 ‘강한 손과 편 팔’로, 2회가 ‘강한 손과 퍼신 팔’(신 4:34; 시 136:12)로, 2회가 ‘능한 손과 편 팔’(겔 20:33, 34)로 번역이 되어 있다.¹³⁾

주의 깊은 독자라면 『새번역』을 읽으면서 ‘강한 손과 편 팔’, ‘강한 손과 퍼신 팔’, ‘능한 손과 편 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동일한 표현이 번역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다면 우리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이 표현의 화자가 하나님인 경우 ‘강한 손과 퍼신 팔’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번역은 ‘강하다’에는 존칭 어미가 없고 ‘퍼다’에는 존칭 어미(‘-시-’)가 붙기 때문에 대구와 리듬에서 약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말 어법에는 더 잘 맞는다. ‘강하다’의 주체는 ‘손’이므로 ‘강하다’에는 존칭어미가 붙을 수 없다. 반면 ‘퍼다’의 주체는 ‘팔’이 아닌 ‘하나님’이므로 우리말 존대법을 따라 ‘편 팔’보다는 ‘퍼신 팔’이 더 낫다. 화자가 하나님인 경우(겔 20:33, 34)에는 존칭어미를 넣는 것이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에스겔의 구절들은 ‘강한 손과 편 팔’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 21:5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 חזקה וברוע נטויה ביד이 나온다. 『새번역』

13) 『개역』과 『개역개정』은 위 히브리어 어구가 비교적 일관되게 번역되었다. 10곳 중 ‘강한 손과 퍼신/편 팔’로 번역된 곳은 『개역』에서는 6곳(신 4:34; 5:15; 7:19; 11:2; 26:8; 시 136:12), 『개역개정』에서는 7곳이다(렘 32:21이 『개역』에서는 ‘강한 손과 드신 팔’로, 『개역개정』에서는 ‘강한 손과 퍼신 팔’로 번역되었다). 나머지 3곳(왕상 8:42; 겔 20:33, 34)에서는 ‘강한’이 ‘능한’으로 번역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편’과 ‘퍼신’이 모두 사용되는데 이것이 어법을 따라 일관되게 표현되지 않은 점이다(어법에 따른 ‘편’과 ‘퍼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공동』과 『공동개정』에서는 이 표현이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억센 손으로(내리)치고 팔을 뻗어’(신명 4:34; 5:15; 11:2; 26:8), ‘강한 손으로 내려치시고 팔을 뻗으시어’(신명 7:19), ‘억센 손으로 치고 팔을 휘둘러’(예제 20:33, 34), ‘억센 손, 그 팔을 휘두르셨다’(시편 136:12), ‘손을 펼치사 위력을 드러내시어’(1열왕 8:42), ‘위엄찬 모습으로 힘 있게 팔을 내뻗으셨습니다’(예제 32:21).

에서는 이를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의도를 잘 살려 주지 못한다. 히브리어 표현은 신명기 표현인 ‘강한 손과 꺾신 팔’에서 명사와 형용사를 뒤섞은 것이다.¹⁴⁾ 그러나 『새번역』의 번역문에서 이 점을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필자가 제안하는 『새번역』 예레미야 21:5에 대한 개정은 다음과 같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율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편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¹⁵⁾

‘강한 손’과 ‘꺾신/편 팔’이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은 아니다. 와인펠드는 ‘강한 손’만 나오는 경우와 ‘꺾신/편 팔’만 나오는 경우도 정리했다. ‘강한 손’만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출 3:19; 신 3:24; 6:1, 21; 7:8; 9:26; 13:9; 32:11; 34:12. 이 중 신명기 3:24의 ‘권능’, 신명기 34:12의 ‘큰 권능’을 제외하면 『새번역』은 모두 ‘강한 손’으로 번역하였다. ‘권능’(신 3:24)이나 ‘큰 권능’(신 34:12)도 문맥 속에서 적절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만약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이가 히브리 독자들의 느낌을 조금이나마 살리려 한다면 ‘권능’이라는 새로운 말보다는 ‘강한 손과 꺾신/편 팔’이라는 고정된 표현의 한 부분인 ‘강한 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꺾신/편 팔’은 출애굽기 6:6과 신명기 9:29에 나타난다. 신명기 9:29는 “꺾신 팔로”라고 번역되어 있다. 출애굽기 6:6의 “나의 팔을 꺾서”라는 번역은 본 소고의 제안하는 번역 원칙을 따른다면 “내 편 팔로”로 고쳐야 한다.

4. אשר כל שמעה/שמעיו תצלנה שתי אזניו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¹⁶⁾

삼상 3:1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אשר כל-שמעו תצלנה שתי אזניו).

14) 예를 들어, 박동현, 『예레미야 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2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637; William L. Holladay, *Jeremiah 1: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86), 571-572; Jack Lundbom, *Jeremiah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1B (New York: Doubleday, 2004), 102; Leslie C. Allen, *Jeremiah: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8), 240-241 등을 참조.

15)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해당 어구는 ‘든 손과 강한 팔’로 번역되어 있어 역시 신명기의 표현을 연상하기가 쉽지 않다. 『공동』과 『공동개정』에서는 ‘있는 힘을 기울여’라고 의역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번역문으로부터 신명기의 정형화된 표현을 연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6) Weinfeld, *Deuteronomic School*, 351.

왕하 21:12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אֲשֶׁר כָּל־שֹׁמְעָה *תַּצְלִנָּה שְׁתִּי אֲזִינוּ).

렘 19:3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한다.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릴 터이니, 이 재앙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אֲשֶׁר כָּל־שֹׁמְעָה תַּצְלִנָּה אֲזִינוּ)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케레. 케티브는 שֹׁמְעָה.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이셨다(삼상 3:10-14). 거의 같은 표현이 므낫세를 향한 예루살렘 멸망 예언(왕하 21:10-15)과 예레미야가 받은 예루살렘 멸망 예언(렘 19:3)에서도 나온다. 『새번역』의 우리말은 이 세 구절의 관계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열왕기하 본문에는 ‘귀’라는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3:11과 열왕기하 21:12에서 (거의) 같은 표현을 쓴 신명기 역사가의 의도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멍멍해지다’, ‘얼얼해지다’라고 번역된 동사 צָלַל의 의미는 ‘울리다’(to resonate, ring)이므로(HALOT), 세 본문에서 거의 똑같이 나오는 위 어구는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¹⁷⁾

5. 결론

신명기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지렛목과도 같은 책이므로 신명기의 어떤 표현이 구약의 다른 곳에서 (거의 비슷하게) 인용된 경우 히브리어 독자들은 그것이 신명기로부터 온 것임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17) 『개역』과 『개역개정』에서는 같은 표현이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삼상 3:11),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왕하 21:12),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렘 19:3 『개역』),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렘 19:3 『개역개정』)로 번역되었고, 『공동』과 『공동개정』에서는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 앉으리라”(1사무 3:11), “나 이제 듣는 자마다 가슴이 내려 앉을 재앙을”(2열왕 21:12), “이런 재앙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귀가 없을 것이다”(예레 19:3)로 번역되었다. 두 번역 전통 모두 신명기 역사서의 두 본문은 비교적 일관되게 번역되었고 예레미야 본문은 다른 두 본문과의 유사성을 알기 힘들게 번역되었다.

세 개의 표현들(אתות ומופתים) ‘표징과 기적’, ד חזקה ודרוע נטויה, ‘강한 손과 펴신/편 팔’, אשר כל שמעה/שמעיו הצלנה שתי אזניו,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의 (두)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은 그러한 예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번역 내에서 이러한 표현들의 형식이 일치된다면 우리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원문을 읽는 감흥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결코 기계적인 형식의 일치가 아니다. 원문의 메시지를 중요시할 때에 ‘번역 내에서’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논증한 것이다.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이 쓰인 문맥과 장르를 고려하면서 ‘패러프레이즈’를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성서 원문에서 신명기적 표현과 같은 예들을 찾아 목록을 작성하고 그 원 뜻을 밝히는 일은 번역자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원문을 직접 대하고 연구하는 모든 성서학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자 특권이다.¹⁸⁾

(투고 일자: 2012. 10. 8. 심사 일자: 2012. 12. 21.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

18) 번역 작업 후 일관성 점검을 거치는 개정에 대한 제안으로는 이수만, “성경 번역에서의 일관성 점검”, 198-199과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 89-90을 참조하라.